



제 92 호

도민에게 편인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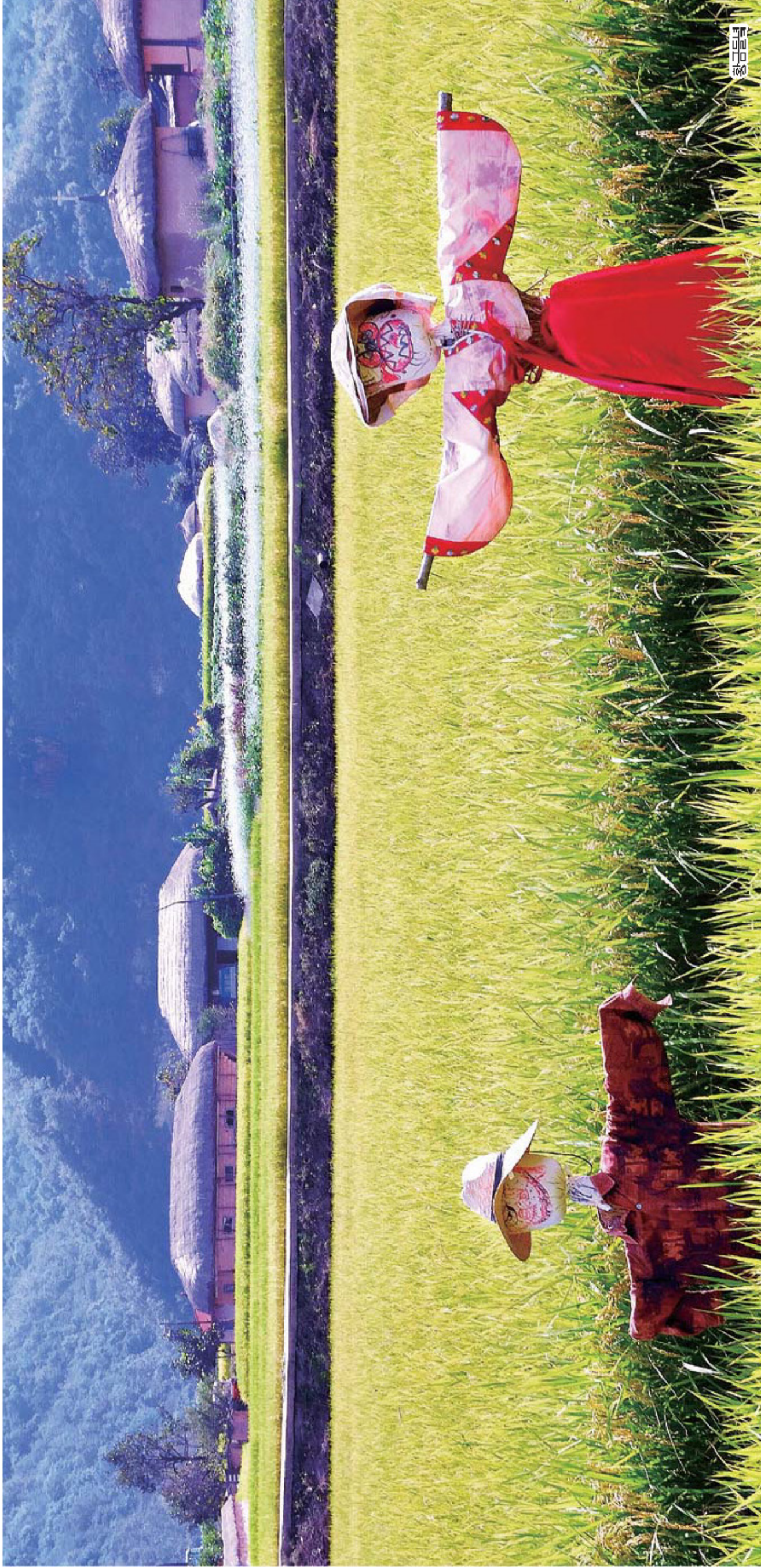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일로 40 2015. 10. (제279회 임시회)



council.gb.go.kr



■ 화보(창금들녘)

■ 의정소식 / 의정만평

■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인터뷰 시리즈 / 부위원장 할례에 인터뷰

- 0 대식 여신결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현일 오호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 7 호경지위원회 부위원장

1면

2~3면

4면

■ 특별기고

- 실재를 통해 발전한 이국산 우거 관리 시스템

■ 위원회 활동 (상임·특별)

- 오호운영 7 호경지 · 함양보안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 여신결신 · 조리 장비특별위원회

5면

6~13면

■ 주요 차관민간 소개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황제철 의원

14~15면

15면

지면안내

창금들녘

제279회 임시회 개회사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이라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입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어제 처서를 지나 한풀 꺾인 가운데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애국지사 방문 위로, 신청사 이전추진
상황 보고회,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폭넓고 적극적인 의정활
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경상북도 의회
가 주도하고 이끌어온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 결과물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

한 입법제안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
치법 개정안 마련
이라는 성과에 머
무르지 않고 뜻
있는 분들의 염
원과 역량을 결집
하여 실질적인 입
법화에 모든 노력
을 경주해 나가기
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동료의원님들
의 적극적인 동참과 고견으로 우리 경
상북도의회가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
속에서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던 국내



경기도 여전히 힘든 상
황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문화, 관광을 비롯한 전
통시장과 농어업인을 위
한 소비수요 창출, 지역
영세업자 보호 등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실크로드경주
2015 성공적 개최와, 적조 피해를 최
소화 하는 등 도민이 행복한 도정건설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완벽
한 이전준비를 통해 행정의 누수와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삶의 터전을 이
전하는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민생과 관련된 제정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룰 예정입
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도민
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희망
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
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24.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한 회기 역대 최대, 의원발의 민생관련 제정 조례안 8건 등 35건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오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1일간 일정으
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특

별위원 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상임위별 주요 현안사항 보고, 현지확
인과 의원발의 민생관련 제정 조례안
8건 등 총 35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
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장대진 의장은 "어느 회기보다 많은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이 8건이나
되는 것은 각종 연구단체 활성화, 공부

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의 산
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
가하면서, "앞으로도 민생관련 조례안
을 많이 발의하여 도민 중심의 의정활
동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



의정만평



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편집인: 장영호, 임필규

편집인: 정병문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의장상' 수상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9월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 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고 의장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대상으로 정책조정력, 업무 추진력, 역량개발 등 의정활동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경상북도 의장으

로는 처음 수상한다.

장 의장은 지난해 7월 역대 최연소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짧은 패기와 열정으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동서화합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광복절 맞아 애국지사 위문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8월 11일 오전 의성군 비안면에 거주하는 배선두(91세) 애국지사의 가정을 방문, 건강과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데 감사의 뜻으로 위문품을 전달과 함께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성 지역 출신 최태림 의원도 함께 했다.

경상북도내 생존 애국지사는 배선두 지사를 비롯해 이인술 지사(90세) 등 3분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위훈을 기리며 보은의 뜻으로 포항 오천읍에 거주하는 이인술 애국지사를 도의회 장경식 부의장과 지역구 도의원들이 방문하는 등 3분의 애국지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경북도의회,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장대진 의장)는 8월 11일 엑스코 국제회의실 211호에서 경상북도의회포럼과 영남대독도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도의원, 전문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14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전후70년 담화(아베담화)가 식민지배와 침략사실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

측되는 등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야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독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인 경상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장 앞에서는 독도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독도사진과 고지도 전시회가 열렸고, 개회식에서는 도립국악단의 독도문화공연이 펼쳐지는 등 광복70주년과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



경북도의회 신청사 명칭 “여민관(與民館)”으로 최종 결정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8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의원총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의회 신청사 대국민 명칭을 “여민관(與民館)”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청사 명칭 제정은 경상도 개도 700년을 맞아 새천년의 도읍지로써 명성을 이어갈 신도청 시대를 맞아 새로이 이전하는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했다.

아울러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의회 상징성을 높이고 새천년 도읍지인 도청신도시를 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해 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경북도의회 미래 장기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함축된 의미를 담았다. ☺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책자 발간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를 상세히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

정 입법제안」을 펴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편집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이번 책자는 지방자치법의 전제 157개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하여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초발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내용,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관련 언론보도 등 그동안의 활동과정 전반을 담은 것이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경북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SOC사업 확충과 도청신도시 기반 조기구축에 전력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7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인 도청 및 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분야가 바로 예산편성과 집행이다. 예산은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예산을 인체에 비교하여 혈액과 같다고도 한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지난 9월 3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태식 의원이 선임되었다. 이태식 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에서 행정보건의료위원회 부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재선 의원으로서,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경험이 풍부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륜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태식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행사경비에 대한 절감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 기반확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정리추경안의 심사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세수부족과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전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의 기본원칙 아래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살림살이에 기여하는 예결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미출신의 이태식 위원장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외모와 인자한 성품에다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소신과 논리가 정연한 내유외강 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전문기술분야인 토목환경공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할 정도로 학구열이 매우 높다.

또한,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의 방향과 재원배분 및 수립기준 등에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도 깜짝 놀랄 만큼의 지식과 안목을 겸비한 관록의 중진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소통과 역동의 경상북도의회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조현일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있다

전국 시도의회마다 의회회기 수립, 주요행사의 일정조정 등 의회운영을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두 사람이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챙기는 홍진규 위원장과 열정이 넘치는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잘 보좌하고 있는 조현일 부위원장이자.

잘 알려진 대로 조현일 부위원장은 협상과 조정의 숨은 달인이다. 출신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상임위원회별, 동료의원 간의 서로 상충되는 생각을 조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소통과 역동의 경북도의회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조현일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홍진규 위원장과 호흡을 맞추며 많은 일들을 펼쳐왔다. 체계적인 입법정책연구기능 및 의정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관실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한편, 독도수호·지방분권·원자력안전·경북대구상생발전, 조례개정특위 등 7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주도했다.

또한 지역구인 경산의 사회봉사 활



조현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경산라이온스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때 일체의 축하화환이나 초청내빈도 없이 회원들만이 모여 간소하게 치렀다. 이날 절약한 경비 1,400만원 전액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여 지역민들 사이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도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현일 부위원장은 "우리 도의회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60명의 도의원들이 출신지역 23개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자칫하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전제하고, 위원회별 또는 의원간의 의견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소통과 화합의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더 낮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경북도의회 최연소도 의원, '인권'이 바로 선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가 젊어졌다. 50~60대가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에 비해 10대 도의회에서는 40대 도의원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 중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최연소도 의원이자 초선의원이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그는 경주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학군장교후보생(ROTC)을 거쳐 강원도 화천의 최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군 제대 후 본격적인 정치공부를 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정치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정치사상을 전공한 그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인 인권(人權)문제를 연구했고, 근대 인권이론가인 존 로크의 '통치론'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원 졸업 후 그는 현실 정치를 직접 배우고자 16대 강삼재, 17대 송영선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와 행정 실무 경험을 쌓았다.

10여 년간 정치인을 보좌하던 그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향으로 돌아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슬로건에는 늘 '낮음'과 '열정'이 들어있다. 도의원이 된 후 그가 가장 먼저 낸 결의안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이다. 북한인권운동의 선구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과 그가 추구하는 정치이념인 '인권의 영향'이다.

그는 민심 속에서 배우며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정치 초년생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 생각하며 선거 때 제시하였던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배진석 부위원장은 "도의원이 벼슬입니까? 머슴이지요"라며 "지역 주민들께서 도의원이라 부르시지 않고 그저 '배군'으로 불러 주실 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늘 가까이 있는 친근한 일꾼으로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다. ☺

실패를 통해 발전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시민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
경상북도의회정보정책정보복지분과위원



필자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에 방문교수로 있었을 때의 일이다. 2012년 10월 29일,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는 최대풍속이 초속 50m에 가까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폭풍직경이 최대 1,520km로, 미국의 전체 주 중에서 22개 주에 걸쳐 영향을 주었는데, 폭우와 바람뿐만 아니라 폭설도 기록될 정도로 유별난 허리케인이었다.

뉴욕을 비롯한 뉴 저지주 등에 거주한 수많은 시민들의 가정과 직장,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뉴욕의 지하철과 항공편 등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됐고, 모든 학교와 기업, 증권 등이 휴교, 휴장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연방재난대응팀과 지방정부들은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본토의 동북부를 느린 속도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지역에 재난정보를 발령했고 위험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해당지역 주지사와 시장 등 모든 공무원들과 위기관리 기관들이 지역재난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재난관리청과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슈퍼 컴퓨터로 계산된 샌디의 이동 경로와 시간, 크기, 피해 위험지역 및 대비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했다.

CNN을 비롯한 거의 모든 미국 TV방송은 24시간 특집으로 연일 이 내용들을 보도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도 재난 대비에 큰 몫을 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난으로 평가되던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의 5%도 안 됐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사전 대비 때

문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허리케인 샌디 위기를 잘 극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박빙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꿀달퇴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2002년 9·11테러 이후엔 기존의 위기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9·11 테러 이전에는 전통적인 안보분야만이 국가의 주

“지금부터 당장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확실히 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이다

넓은 영토만큼이나 미국은 재난이 많은 국가이다. 미국의 위기관리능력이 발전한 것은 재난학습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1년 9·11 뉴욕테러와 2005년 8월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실패한 사례를 통한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친” 덕분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조지 부시 행정부는 허리케인이 몰려오기에 앞서 주민대피령을 제때 내리지 못했고, 연방정부 외 주정부의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능동대응으로 2,50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실로 엄청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그 일환으로 재난관리청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재난 사전경고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사태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초기 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물론 이전에도 미국은 위기관리 조직을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의 환

권을 지키는 위기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고,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수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각종 인적 재난 등으로 수천명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가들은 이 사건들을 국가위기관리 자원에서 다룰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런 점에서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포괄적 안보개념 속에서 미국은 애국법(The Patriot Act)을 통과시켜 테러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한 도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국에 유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미국은 테러에 대응,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안보부와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을 설립했다.

교통안전청은 최근 일년 동안 47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며 미국의 모든 공항보안을 효과적으로 국유화했다. 또 항공보안 절차들이 점

자 표준화되고 엄격해졌다.

지난 2003년 미국의회는 내각수준의 연방정부 중 세 번째로 거대한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를 설립했는데, 이 부처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설립된 연방부처이다. 수십여 개의 사무실과 관료들이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에 편입됐으며, 국경통제와 이민부서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이나 국제 테러리즘, 자생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 미국과 전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재난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데 기후변화는 자연재난의 범위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비가 극단적인 기후로부터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간의 정쟁이 있을 수 없고, 수 천개의 국가정책과제 중 최우선과제로 집행돼야 한다. 효과적인 위기관리 정책은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의 접근방법, 그리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 매뉴얼작성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심도있는 연구와 학습으로부터 나온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당장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확실히 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이다. ☺

의회운영위원회



1. 2015년 의회운영위원회 신청사 현장점검 | 2.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 3.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예결산특위 구성, 제280회 임시회 회기협의 등 안건처리, 신청사 건립현장 점검 및 타시도 비교견학 연찬회 실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0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최하며, 주요안건으로는 도정질문(2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각종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처리기로 협의하고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조현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5명의 위원들로 구성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동안 제출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의회신청사 공사현장을 찾아 이전 추진상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도청 신도시 현장을 둘러본 후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도로개설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개선·보완점을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여 타시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후반기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평 메밀꽃축제, 강원랜드,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선교장,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등을 직접 찾아서 관광인프라와 문화관광 콘텐츠 등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우수한 사례들을 경상북도의 정책개발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띤 토론을 가졌다.

홍진규 운영위원장,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 참석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인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군위)은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채택, 제7기 전반기 제2대 임원 선출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최길영 대구시의회운영위원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자기회의는 충북도의회에서 개최기로 하였고, 그 밖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전국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제27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영·호남 상생을 위한 전남의회 현지방문 실시 조례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요금에 분담방안 검토” 요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8월 25일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9건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였던 투자유지 활동 지원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에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투자유지활동 지원범위 확대, 타 업종 전환 규정 삭제 등 투자유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에서 배진석(경주) 의원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의 77.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때문으로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가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영·호남 상생 방안을 찾아나갈 것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시가스 설치 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평균 500만원 정도로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에 매월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납부시키면 주민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첫째 날에는 5·18 민주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영·호남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남도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가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영·호남 상생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
2. 광주 5.18민주묘역 참배
3. 전남도의회 신청사 본회의장 방문

제279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및 의정포럼 개최

의원 입법활동을 통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소관 상임위 분야 지역사회 싱크탱크로부터 의정현안 소통의 장 마련

현지방문을 통해 운영현황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의원입법 발의로 정책적 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여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심의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의안유보 하였으며, 1건은 수정 의결했다.

먼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한 의원 발의조례로서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어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과 소비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활동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시책의 의견수렴 규정 등을 명시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연합회의 범죄 예방 및 선도 등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에 공공보건 전문가 및 지역 주민대표의 참여와 원장 연임 시 운영평가, 경영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였으나, 조례 명시사항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유보했다.

또한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예 따라 도 민간보조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 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했다.

의정 소통 위한 의정포럼 개최 및 현지방문

상임위 안전심사후에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교수 등 싱크탱크로 구성된 '경상북도 의정포럼 행정보건의복지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포럼 분과회의운영방향에 대한 토의와 포럼위원인 영남대학교 김철 교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기도 했다.

한편,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에서는 8. 26(수) ~ 27(목) 양일간에는 도내 노인 요양시설 등의 현지방문을 통해 운영현황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이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1. 의정포럼 행정보건의복지분과 회의
2. 제279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3. 노인요양시설 현지방문

제279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실크로드 경주 2015’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중인 8월 25일(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현지확인을 통해 소관 부서의 대형 프로젝트 행사인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및 실크로드 경주 2015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정포럼 문화환경분과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정포럼 문화환경분과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먼저,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의정포럼 분과 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포럼 문화환경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포럼 분과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향후 문화환경 정책수립 및 추진시에 의정포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등 조례 3건 심사·의결

이어 의원발의의 조례 3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문화환경위 소관 대형 프로젝트 행사 준비·추진상황 점검

의정포럼, 조례안 심사, 현지확인 등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최태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했다.

주요시책사업 현지확인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

위원회는 8월 25일~27일까지 3일간 상임위 소관 분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8월 26일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점검에서는 운영시 경호·경비·안전대책, 대국민 홍보대책 등 철저한 준비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지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업체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처럼의 국제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기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7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을 방문

하여 실시한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진행상황 점검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59일간 경주 엑스포공원일원에서 개최중인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주요 프로그램과 국내·외 손님맞이 상황에 대해 점검·확인했다.

특히, 그랜드 바자르, 한민족 문화관, 새마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볼거리를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많은 국민이 체험하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주차, 화장실, 식당 등 관람객의 시선과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실크로드 경주 2015」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9월 1일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팔공산 도립공원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을철 관광객 맞이 준비대책에 대해 점검한 후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27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는 의정포럼, 조례안 심사, 현지확인 등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1.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현지확인

2. 팔공산도립공원 현지확인

3. 의정포럼 문화환경분과 간담회



농수산위원회

제27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적조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화 신중히 추진 곤충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당면현안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4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 앞서 동해안발전본부와 농축산유통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부터 '적조피해 상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효과적인

인 방제 대책 추진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현실적인 사전 방류 보상단가 산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제고, 매년 반복되는 적조로 인해 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축산유통국장으로부터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개발계획'의 추진배경과 향후계획

을 보고 받았다. 특히 위원들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도통합 브랜드로 인해 차별화와 인지도가 떨어져 피해를 볼 수 있고 경북과수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안희영(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식품, 화장품·의약품 소재, 사료, 병해충을 퇴치하는 천적,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정화, 학습·애완용 등 다양하게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곤충산업의 육성·지원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 지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1. 농수산위원회 회의

2·3. 농수산·독도수호특별위원회 합동 연찬회

독도침탈 막을 실효적 대응전략 논의 독도 전문지식·전문 넓혀 의정활동 역량 강화

농수산위원회·독도수호특별위원회 합동연찬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울진과 삼척 일원에서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양 위원회 공통 소관분야인 독도에 대한 의정활동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점점 노골화됨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울릉도·독도 해양 영토 개척 영웅인 신라장군 이사부를 테마로 한 이사부사자공원과 조선시대에 울릉도·독도를 관할하기 위해 파견된 수토사들이 순풍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장소인 울진 대풍헌을 견학하고 독

도를 지켜온 선조들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되새겼다.

또한,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의 '일본 자료를 통해 본 독도 침탈행위'란 주제의 특강을 듣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들이 허구임을 확인하는 한편,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합동연찬회가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연찬회에 제시된 사항과 현장의 귀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279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및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 279회 임시회 기간중 8월 25일과 8월 27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심사와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4개 실·국·본부장으로 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 등 대책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통지기한은 별도로 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지역균형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품격높은 경북형 한옥 모델개발과, 지역업체를 이용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강하게 주문, 새마을 테마공

1. 도민안전실 첫업무보고
2. 안동 신청사 주변 아파트 건설 현장 점검
3. 동명~부계간 도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소관 4개 실·국·본부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

도청 이전 연기 질타 등 문제점 지적 및 대책 요구 '풍수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현장의정 활동 전개

원 조성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하고 경북드림밸리 건설사업에서 이전 못한 3개 기관이 이른 시일내 이전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포항 블루밸리, 구미 하이테크밸리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09년 시작하여 벌써 7년~8년 지나 완공시점이 얼마남지 않고 있음에도 보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도는 재난 안전 전담부서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한 만큼 지금의 인력부족으로 도 전체의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은 어려운 실정임으로 안전관련 민간단체와 연결되는 시스템개발 및 안전지도, 체계적 매뉴얼 작성, 안전체험관 설립 등을 주문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50%가 경북에 존재하는 만큼 원전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오지 및 도서지역에 우선 작은 소방서 설치, 소방서 신축설계시 일률적 설계를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설계 등을 주문했으며 특히 소방서 신축시 시·군 소유 부지에 대하여 기부제납 받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청신도시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도청이전 시기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연기되고 있다고 문제 삼고 하수처리장의 경우 일정한 하수유입으로 시험가동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데 시험가동도 없이 준공처리하여야 하는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각종 시설물도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8월 31일, 건설소방위원회는 안동 신청사 등 현장방문, 풍수해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 날 현지확인에서는 의회 신청사 이전 추진상황,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 정주여건 추진상황,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완

벽한 정주여건 조성과 부실없는 진입도로 개설을 당부했다.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현안사업 등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풍수해를 대비하여 상주~영천간 고속도로현장과 동명~부계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강풍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시설물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평소 시설물 주변을 관심있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3



교육위원회

제27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도민에게 평안함을 위해,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경상북도 의정포럼 교육분과 간담회

2015. 10. 27(목) 경상북도의 교육위원회

경상북도 의정포럼 교육분과 간담회

교육정책 발전 방안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경북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및 대안 제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소통 강조



도의회 교육정책 협력강화 연찬회

경상북도의회 의정포럼 교육분과 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와 의정포럼 교육분과(분과대표 권기을)는 8월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양 위원회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의정포럼 교육분과 운영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의정포럼 교육분과 12명의 위원은 지역 및 교육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의정포럼 교육분과 간담회에서 경북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교육위원 및 분과위원들의 경북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교육과 더불어 독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열악한 교육재정, 비정규직 문제, 자유학기제 등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다.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은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목적으로 의정포럼이 구성되었고, 도민이 행복한 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간부와 연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도교육청 간부들과 경주 현대호텔에서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이영식 위원장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재정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8월 25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가 소액인 증명서류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없애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할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 2종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운영과 관련한 '경상북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규 정비의 체계 및 용어, 조례 내용 등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입법예고기간 및 범규의 용어 선택 등에 있어서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했으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유보시켰다.

이영식 위원장은 "제10대 경북도의회가 출범되고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교육위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통 능력은 역대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279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성명 : 가나다 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로 구성

이태식 위원장
구미시최병준 부위원장
경주시강영석 위원
상주시구자근 위원
구미시나기보 위원
김천시도기욱 위원
예천군박문하 위원
포항시박영서 위원
문경시윤종도 위원
청송군이정호 위원
포항시이진락 위원
경주시장두욱 위원
포항시정상구 위원
경도군조주홍 위원
비례대표한혜연 위원
영천시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 최병준 의원 선임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태식 의원(구미)을, 부위원장에 최병준 의원(경주)을 선출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선임된 제10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태식 위원장과 최병준 부위원장 외에 한혜연(영천), 장두욱(포항), 도기욱(예천), 이정호(포항), 나기보(김천), 강영석(상주), 구자근(구미), 조주홍(비례), 박영서(문경), 이진락(경주), 윤종도(청송), 박문하(포항), 정상구(경도)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청과 도 교육청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태식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 하반기와 내년도는 신도청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우리 도의 열악한 SOC사업 확충과 도청신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일은 우리 경북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자질 없이 추진토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화, 안전관리 기능의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 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세수 부족으로 국비예산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세입부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과세대상 발굴, 세외수입장수 효율화와 탈루세원 장수활동 강화에도 관심을 두고 예결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교육분야예산에도 더욱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 신장, 학교급식시설 등의 교육인프라 구축

에 예산이 집중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결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 및 예결위원들과의 대화와 소통, 일선현장의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고, 그동안 제한된 예산심사기간 동안 서류심사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지금까지의 예결위 활동범위에서 벗어나 예산편성 시기 이전에도 도내 주요사업장을 두루 살펴면서 사업추진 상황과 예산투자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선출된 최병준 부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 속도와 도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달라지는 만큼 예결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79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내년도 2월까지 현행
조례·규칙 191건 대폭 정비키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광경호)는 지난 8월 25일, 제3차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각 전문위원, 도청 및 도 교육청 실무부서에서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조례정비특위와 긴밀한 협조하에 40일간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조례·규칙 606건(조례 435건, 규칙 171건) 중 정비대상 조례·규칙 191건(조례 142, 규칙 49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특위는 올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정비대상조례를 확정하고 내년 2월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279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전략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보조금의 제한과 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 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의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함.

▶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 11. 29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박권현 의원외 3명 2015. 8. 13.
제안이유 :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감면하고 있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의 2의 규정이 2015년 7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의 일부 연장이 필요함. 특히, 전통 소싸움산업의 육성으로 건전한 레저산업의 정착과 경북의 대표 문화관광상품인 소싸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김위한 의원외 10명 2015. 8. 13.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자 : 장용훈 의원 외 8명 2015. 8. 13.
제안이유 : 경북도내 도시가스보급률(54%)이 전국 평균(76.4%)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필수 생활 소비재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통해 공급 소외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두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기준 및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적용하고 조직개편과 법 폐지로 관련법명을 변경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구성 방법 및 투자유치활동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받은 기업이 3년 내 업종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발전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고자 함.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근로자 복리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정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기본목표 설정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우호협력지역의 선정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법규를 마련함.

▶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발의자 : 정영길 의원 2015. 8. 13.
제안이유 : 현재 시·군 자율방범대와 도연합회가 구성되어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원들의 자긍심과 적극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상북도방범연합회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내실있고 활기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도가 권장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연대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 민간보조사업의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재원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현행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발의자 : 황병직 의원외 6명 2015. 7. 31.
제안이유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발의자 : 남진복 의원외 6명 2015. 7. 31.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여 도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 김인중 의원외 13명 2015. 7. 31.
제안이유 : 경북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최태림 의원외 6명 2015. 7. 31.
제안이유 :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상구 의원외 8명 2015. 8. 13.
제안이유 : 2016 회계연도부터는 도가 권장하는

제279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됨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정지출 상위법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

▶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자 : 이운식 의원외 8명 2015. 8. 13.
제안이유 :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안희영 의원외 6명 2015. 8. 13.
제안이유 : 애완용, 학습용, 식용, 의약품, 사료용, 화분매개용, 농약 대체재 등 곤충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곤충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곤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로 도의 재정지원을 하고자 함.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 지정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등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규정 삭제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직이 부족한 여성 건축위원의 연임규정 완화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정비 등 건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2014. 5. 28, 개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014. 11. 28, 개정)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2014. 5. 28, 개정) 제3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1.
제안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1.
제안이유 :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수료가 소액인 16종의 증명서류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을 변경하고, 수수료 면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명백하지 않은 조문과 불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원전 신설지역 발전로드맵 제시 촉구

갈등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기는 하지만, 영덕에서는 원전건설 찬반논란으로 지역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으나,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고수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원전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경북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민

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15. 11. 9. ~ 11. 22. 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평소 보고 느끼신 사항(정책제안, 제도개선, 생활불편 등)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간)

- **제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및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제보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 접속후 팝업창 서식다운로드 클릭 후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팩스) (053)602-5140, 전자우편(이메일) ucchun@korea.kr
- (우편)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의회(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053)602-5139 로 문의 바랍니다.
- ※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을 보장합니다.